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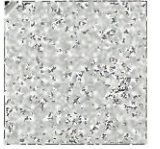
# 시온 주보

제2363호 2021년 10월 24일(나해)

연중 제30주일(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번역용 바코드



## 입당송 | 시편 67(66),2-3 참조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제1독서 | 이사 2,1-5

## 화답송 | 시편 98(97),1,2-3ㄱ,ㄴ,3ㄷ-4,5-6(◎ 2 참조)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 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

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려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려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제2독서 | 로마 10,9-18

## 복음환호송 | 마태 28,19,20 참조

##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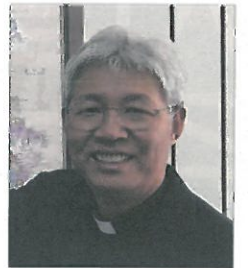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복음 | 마태 28,16-20

## 영성체송 | 마태 28,20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 | 해외선교봉사국장

##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기쁜 소식이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로마 10,9)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시며, 기쁜 소식 자체이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형제와 자매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가 병들고 죄 많을 때라도 우리를 포용하시며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대신 하느님 나라를 선사하시는 분, 참으로 사랑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힘차고 가볍겠습니까!

단테는 신곡 지옥편 3곡에서 “평생 남부끄러운 것도, 자랑할 것도 없이 지내온 자들의 영혼”들은 하늘도, 지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혹평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저승에서도 불행한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는 속절없는 세상의 헛된 희망에서 벗어난 사람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양육된 이들, 기쁜 소식을 간직한 예

수님을 품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가난한 마음, 온유와 의로움, 자비와 깨끗한 마음으로 슬픔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평화를 이루는 삶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요 천국에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참행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용서로, 평화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맙시다.

서울대교구는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프랑스와 일본, 페루와 파나마에 선교 사제를 파견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때로는 너무 참담하여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이들 곁에 서서 함께 슬퍼하며, 믿음과 희망으로 하느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나눔은 선교사들의 발을 통해 사랑으로 세상 끝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이사 2,3)



강원도 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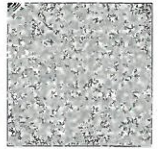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사방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색들로 넘쳐납니다. 늘 평화로움 속에서 생활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가을 산을 바라보는 넉넉한 마음으로 언제나 저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기를 청해 봅니다.

김선형 마르타 | 가톨릭사진가회







장일범 발렌티노 | 음악 평론가

## 성호경의 아름다움

디에고 마라도나(1960-2020), 펠레와 함께 20세기 전 세계 축구의 상징이자 최고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 그가 마약에 손을 대면서 기행도 일삼으며 인생을 망치게 되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월드컵에서 고국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감독도 맡았던 마라도나는 그 이후, 아랍에미리트 2부 리그 감독을 거쳐 멕시코의 2부 리그 하위권을 맴도는 팀 도라도스 데 시날로아의 감독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시날로아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거점도시로, 매우 위험한 도시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자신을 불러주는 시날로아 팀의 감독이 된 마라도나는 선수들이 잘못해도 선수 탓을 하지 않고 언제나 큰 형처럼 “너희는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면서 뜨겁게 선수들을 응원하고 독려하며 아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같이 뜨거운 자신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혈기를 참지 못하고 심판의 판정에 항의해 퇴장당한 채 라커룸에 가서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기 일쑤였습니다.

선수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추앙받은 ‘살아있는 전설’이었지만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야유를 받는 2부 리그에서 그는 자신의 선수들을 진심으로 아꼈고,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선수들에게 전파해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마라도나가 시합 전 집에서 나올 때 꼭 십자가 앞에서 성호를 여러 번 긋고 기도를 하며 길을 나섰고, 도라도스 데 시날로아 선수들과 라커룸에서 스타디움으로 나가기 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함께 기도를 올리고 성호를 그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 바로 마라도나의 진심이 담겨있고 그의 간구가 담겨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 2루타를 쳐도 성호를 긋고, 홈런을 쳐도 홈을 밟으면서 성호를 긋는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대부분 중남미계 선수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선수들이 경기 시작할 때 그리고 교체되어서 그라운드로 나올 때 언제나 성호를 그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 선수들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하기 전에 성호를 긋고 빼어난 연기를 보여주고, 김연경 선수가 성호를 그으며 이번 도쿄올림픽 여자배구에서 4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말이죠.

저도 마라도나를 비롯한 프로 선수들이 성호를 그으면서 경기장에 비장하게 나서는 것과도 같이, 콘서트홀에서 해설을 하러 나가기 전에 그리고 가톨릭평화방송 스튜디오에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을 진행하기 전에 꼭 성호를 긋고 짧은 기도를 올립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공연에 집중하게 되며 지향점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 봐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성호를 그어볼까요? 주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수호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언제나  
기쁘게 감사하시오  
겸손히  
기도하시오  
(1코리네후 5, 16)

김태성 다니엘  
의정부교구 능곡성당



영화 '돈 워리'

# '나' 자신을 용서할 때까지

2018년 감독: 구스 반 산트

존 캘러헨(1951~2010), 미국 포틀랜드 출신의 카툰 작가입니다. 굵은 펜으로 단순하게, 때론 거칠게 그린 만화는 거침없는 소재와 농담, 풍자로 유명합니다. 이것뿐이라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태어나서 6개월 만에 버려지고 열세 살 때부터 술을 마신 알코올 중독자로 스물한 살에 사지가 마비된 인물이라면 다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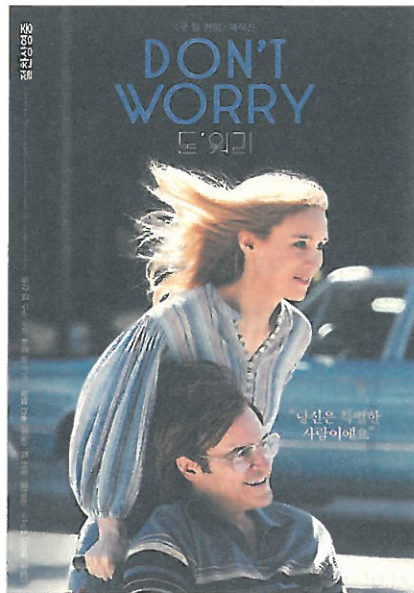
〈돈 워리〉는 불우하고 절망적인 시간과 그 시간을 이겨 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그의 자서전입니다. 줄담배에 금단현상(손 떨림)으로 일어나자마자 술부터 사서 길이나 공원에 주저앉아 마시고, 숙취 없이 잠을 깨는 일이 거의 없는 나날들. 친구와 술집을 옮겨 다니며 진탕 마시고는 시속 140km로 달리다 온몸이 부서진 것은 당연한 결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존(호아킨 피닉스 분)은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마음에 원망과 미움만 가득합니다. 설상가상 사고로 이제는 손만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 나에겐 미래가 없어.”라고 울부짖으면서 휠체어에 앉아서도 여전히 술만 찾습니다.

정말 ‘이런 몸’ 때문에 그의 미래가 없어진 걸까요. 그럼 ‘이런 몸’이 아닌 때에는 미래가 있기는 했나요. 그는 자원 봉사자 아누(루니 마라 분)와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의 멘토인 도니(조나 힐 분)를 만나면서 그것이 아님을 깨달아 갑니다. 아누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앞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 것이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깊은 사유와 성찰의 소유자인 도니는 “하느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주시고, 그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해 줍니다.

한 인간이 절망과 자학, 상처와 자기연민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핑계로 오랫동안 술독에 빠져있었다면. 존 역시 술로 삶이 피폐해졌음을 인정하고, 어떤 큰 힘이 맑은 정신을 준다고 믿고, 의지와 삶을 주님의 보살핌에 맡기지만 유혹과 의심, 두려움에 흔들리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도니는 충고합니다. 도움 받을 수 없다고 믿을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꼭 예수님한테는 아니더라도 믿고 요청해라. 믿음에만 매달리지 말고 행동해라.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떠넘기고 싶을 때는 이걸 하느님의 선택이라고 믿고 하느님 바구니를 만들어 종이에 문제를 적고는 구겨서 던져 넣어라.

발견과 깨달음의 순간들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상처도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은 영영 사라지지 않아 매일 그것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도니는 그 고통과 상처를 이겨내는 길은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대로 존은 자신을 미워한 고교 선생님과 양부모, 도움을 거절했던 사회복지사, 함께 사고를 당했던 친구를 만나 사과하고 용서합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어머니는 물론 과거와 지금 그대로의 ‘나’까지 용서합니다.

그 용서의 힘으로 풍자만화를 그리고, 아누와의 사랑도 시작한 그가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걱정 말아요. 희망은 멀리 가지 않으니까! (Don't Worry, He Won't Get Far on Foot!)”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최성기 신부	제2 서대문-마포지구장	겸) 공덕동 본당 주임서리
임희택 신부	공덕동 본당 주임	면직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10월 31일 유영근 요한 신부(43세)
- 1994년 10월 26일 구천우 요셉 신부(97세)

‘백신 나눔 운동’ 참여 방법

참여방법 1 ■ 본당 사무실에 성금 접수(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참여방법 2 ■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5-398-100101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문의: 02)774-3488

목주 기도 성월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十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나이다.

◎ 아멘.

교구청일람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 신성태 8회 개인전: 1전시실
- 신미순 사진전: 2전시실
- 전시일정: 10월27일(수)~11월1일(월)
- 주동현 개인전: 3전시실
- 전시일정: 10월27일(수)~11월8일(월)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2021 가을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 (<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47

신앙,인문학을 만나다 - 음악	11월11일~25일 매주(목) 19시 30분~21시(총 3회)
트레이싱 기법 현대 성화 그림	11월6일(토) 14시~16시30분(장애인 / 비장애인 통합 수업)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녘 본당 갖기’ 미사)

1292차 10월2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미사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흥남 본당, 함흥 본당 11월2일(화)은 위령의 날 미사 관계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는 없습니다

유튜브 통해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 문의: 02)727-2420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10월24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문의: 02)727-2234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11월4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임 가신 길, 임 따라 걷는 길’ 순례 신청 안내

때: 11월2일(화) · 11월13일(토) · 11월16일(화)  
코스: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우포도청 터~절두 산순교성지) 도보 순례  
회비: 1인 7천원(간단한 간식 제공)  
신청: 10월25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http://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방역지침 준수,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02)2269-0413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1~2022년 상반기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cpc@seoul.catholic.kr)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직원모집

가평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형태 선택 가능, 기숙사 제공 / 031)589-0102  
야간전담(격일제 야간), 주간전담근무, 3교대 근무

한국천주교주교회의·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자부 직원 모집

분야: 사무직 0명, 노무직 0명(조리 0명, 경비 0명), 전교기구 0명 / 10월29일(금) 14시 접수 서류까지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 이메일 문의: 주교회의(mano@cbck.kr)·전교기구(pmsk@pmsk.net)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모 승천 수도회	수시	본원(광주광역시)	010-3771-5098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11월21일(일) 10시30분~16시 / 성소 피정	Zoom	010-4096-5973
한국의방선교회	11월7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인준단체 알림**

**모임**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1월1일~30일 / 문의: 010-8874-7970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때: 10월25일(월) 오전 10시~낮 12시 / 내용: 미사, 강의  
 곳: 가톨릭회관 7층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1월5일~8일·11월19일~22일·12월3일~6일·12월10일~13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5차	11월5일(금)~13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96차	12월3일(금)~11일(토)	
제97차	12월31일(금)~2022년 1월8일(토)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산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지순례 피정	11월6일~9일, 11월14일~17일
자연순례 피정	11월20일~22일, 12월3일~5일, 12월11일~13일, 12월30일~2022년 1월2일

**11월 가정선교회 행사**

성가정 영성 일 피정	11월3일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가스톨 신부, 이현주 회장 / 식수 준비 문의: 010-2367-2297, 02)777-1773 대표
첫토 성모 신심미사	11월6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한철호 신부 / 010-5674-8511, 02)777-1773 대표

**교육**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블로그: blog.naver.com/pc21s / 010-5313-6554(문자)

**ICPE 온라인 청년 세미나 / 문의: 010-9773-3430**

주제: 몸신학과 젠더 이데올로기 / 대상: 청년  
 때: 11월5일부터 매주(금) 20시 / 회비: 2만원(6주)

**새천년복음화학교 145기 1단계 온라인 유튜브 개강**

때: 10월5일(화) 오전 10시 / 회비: 7만원  
 수강문의: 02)753-8765, 02)2096-0410-0411

**성음악 클래식기타 주법 교육**

성음악 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교육  
 때: 매주(금) 14시~16시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원서접수: 11월1일(월)~26일(금) / 인원: 20명  
 대상: 상호문화교육 희망자 및 이주배경 청소년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61)432-9241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경제독립으로 가는 길' 강연**

강사: 존리 대표(메리츠자산운용) / 선착순 전화 접수  
 때, 곳: 10월28일(목) 14시, 가톨릭회관(명동) 1층 강당  
 문의: 02)727-2471 한국여성생활연구원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1월 입학 모집**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기간: 단기 1년 또는 장기 / 백신 접종 가능  
 주처: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수시 가능 / 검색: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처: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2022년 인천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모집**

접수기간: 11월9일(화)~19일(금)  
 면접고사: 11월26일(금) / 모집학과: 조형예술학과,  
 그리스도교미술학과, 디자인콘텐츠학과, 간호학과  
 입학문의: 032)830-7022 송도국제캠퍼스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 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  
 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바로로말 '영화 속 행복찾기' 영 시니어 모집(기초반)**

주제: 자아성장과 신앙성숙 위한 힐링 무비 / 선착순 10명  
 때, 곳: 11월12일부터 매일 둘째·넷째주(금) 13시30분~17시30분(총8회), 헤히바로로말 헤하나무 / 회비: 12만원  
 문의(접수): 010-2928-8274 이 벨라뎃다수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2년 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12월6일(월) 14시  
 원서접수: 11월1일(월)~12일(금) 17시  
 문의: 02)2258-7076 대학원교학팀, 02)2258-7107 조교

**2022년 전기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문화영성학(석사학위과정) / 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접수: 11월1일(월)~15일(월) / 면접: 11월26일(금) 예정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반포)  
 문의: 02)2258-7814(http://gcs.catholic.ac.kr)

**생활성서사 온라인클래스 '가톨릭온' 신규 클래스 개강**

문의: 010-3092-1108, 02)945-3300(www.catholicon.co.kr)

성경본문중심 2	김혜운 수녀	수시 접수
지혜여정 예언서	박형순 신부	
지혜여정 역사서	김영선 수녀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4  
 때, 곳: 10월27일(수) 오전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故 차동엽(노르베르토) 신부 선종 2주기 추모 미사  
 때, 곳: 11월12일(목) 오후 2시, 백석 하늘의문 성직자 요원 / 문의: 031)986-7141 미래사목연구소

**성서가족 열린미사(역삼동성당)**

10월 열린미사는 10월24일 3시에 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하며 코로나19 관계로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참석이 가능해지면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주소(http://openmass.net) 접속 또는 열린미사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동영상 보기' 버튼 클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010-5229-9425

**10월 영화 치유 미사·제8회 가톨릭영화제**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1) 10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0월27일(수)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205-2호  
 2) 제8회 가톨릭영화제  
 때: 10월28일(목)~31일(일) / 입장료 무료(자율기부제)  
 곳: 대한극장(전철 3·4호선 충무로역)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caff.kr) 참조

**인나**

씨튼영성센터 심리상담 / 문의: 010-6799-3732  
 사별, 우울, 불안, 관계, 부부상담 / 박관희 수녀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외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건강한 마음과 인생의 사계절 생활 속의 심리학	11월4일~12월16일 매주 (목) 오후 1시~3시(7주)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사목상담	성격, 관계, 정서(불안·우울·단절감) 등 심 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사목 /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무료 10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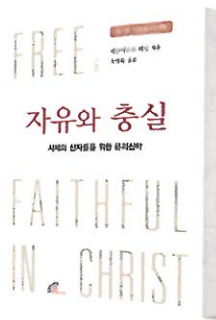




신간  
**지혜 여정 신약  
마르코 복음서**

박문수 지음  
생활성서사 | 200쪽 | 1만6천원  
문의: 02)945-5987

성공이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이스라엘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근본 진리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 안에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신앙의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다.



신간  
**자유와 충실  
(제1권 기초윤리신학)**

베른하르트 헤링 지음  
바오로딸 | 760쪽 | 3만5천원  
문의: 02)944-0944

가톨릭 윤리신학 전반을 다룬 대작이다. 세 권으로 된 시리즈 중 제1권으로서 기초 윤리신학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관한 신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중심을 둔 삶의 기초 이론, 교회 내 윤리신학의 역사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한다.



신간  
**주님의 포도밭에  
파견된 이들**  
-예수회 회헌 탐구

브라이언 오리어리 지음  
도서출판 이나시오영성연구소  
262쪽 | 1만5천원 | 문의: 02)3276-7799

수도 회헌은 각 수도회의 기본 법전으로서 수도회의 고유한 성소, 목적, 정신 등 본질적인 요소와 더불어 수도회 통솔, 재산 관리, 회원들의 입회, 양성, 퇴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까지도 명시하고 있다. 예수회 회헌도 마찬가지로 예수회의 목적과 규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신간  
**45일의 기적**

박지현 지음  
바오로딸 | 292쪽 | 1만6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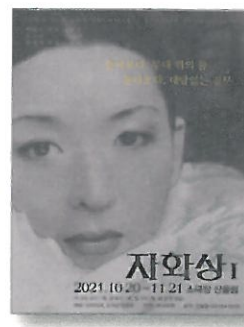
이 책은 산티아고 순례기이면서 소화 데레사의 영성, 곧 작은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담은 영성 서적이다. 아울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용서와 화해, 그를 통해 부부관계의 치유와 성장을 고스란히 담아낸 신앙 체험 고백이기도 하다.



신간  
**살아있다면 계속 달려야  
합니다\_달리는 신부의  
살아있는 사람 이야기**

김 하상바로 지음  
분도출판사 | 256쪽 | 1만8천원  
문의: 02)2266-3605

저자는 달리기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달리는 기쁨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하나의 사명으로 여긴다. 단순히 취미, 건강을 위해 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뜻있는 이들의 후원을 받아 가난한 이들에게 전달한다.



공연  
**윤석화 아카이브 I  
- <자화상>**

공연시간: 수 15시·20시, 목금 20시, 토일 15시(월·화 공연 없음 / 11월 11일(목) 공연 없음)  
입장료: 전석 4만원 / 문의: 02)334-5915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연기 인생 50년을 앞두고 있는 배우 윤석화가 무대 위에서 그리는 <자화상>으로 11월 21일까지 소극장 산울림에서 공연한다. 고향과도 같은 소극장 산울림의 무대로 돌아와 대표작 <하나를 위한 이중주> <목소리> <딸에게 보내는 편지>의 감동을 다시 재현한다.

제2200 (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영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li> <li>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li> </ul>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li> </ul>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축 하 합 니 다\*\***



**첫영성체를 하는 11명의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초등부 첫영성체

일시 : 11월 6일(토) 오후 3시 미사

◎ 예비신자 입교식 : 10월 31일(주일) 11시 미사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수요반	11월 3일(수) 오후 8시~	교육관
주일반	11월 7일(주일) 오전 9시~	304호

※ 교리재교육이 필요한 교우들도 함께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28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 병자영성체 : 10월 29일(금) 오전 10시 미사 후

◎ 위령의 날 미사

11월 2일(화)	오전 10시	(합동위령미사)
	오후 7시	(합동위령미사)

\* 11월 2일은 위령의 날을 맞아 죽은 이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미사 후에 연도가 있습니다.

◎ 유아세례 : 11월 7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청년 성서모임 '새암성서' 가을학기 봉사자 모집

- 청년 성서모임 '새암성서'에서 함께 성경그룹 나눔에 도움 줄 청년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10월 상시

- 개강: 10월 중 개강

- 과목: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 문의: 대표봉사자 정종현 사도요한 (010-3223-5747)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10일(화)~11월 17일(수)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문의 : 중고등부자모회장 (010-7752-4976)

※ 신청은 문자로 연락바랍니다.

◎ 틴스타 소개 특강 (가톨릭 성교육 프로그램)

대상 : 주일학교 학부모 및 교사

일시 : 10월 30(토) 오전 11시 30분 / 대성전

◎ "형제, 자매님들을 찾습니다."

+ 찬미 예수님

지난 1년여 동안 연희동 성당은 구역장님들과 반장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당 구역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성당구역을 정비하면서 알게된 여러 사항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묵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인 10월 한 달동안 지금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가족, 이웃 등) 다시금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이후, 지난 3년간 연희동성당에서 아무런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성사생활, 봉사활동, 교무금내역, 기타 등등.. 이중에서 한 가지라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주미상으로 분류, 입력 될 예정이오니 교우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노력으로 쉬는 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 또는 구역장(반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전교주일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10. 17)

총세대	책정 세대	미책정 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202	845	1,357	45.2%	42.0%	38.4	36.9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리모델링 기금 (10월 11일~17일)

누 계 .....919,676,861원

◎ 감사헌금 (10월 11일~17일)

정수진 .....칠만원 함영동 .....일만원

익 명 .....오만원 이경구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9주일)

교무금 .....7,370,000원

주일헌금 .....3,320,000원

리모델링 2차헌금 .....1,602,000원